

# 한국노총 “금호고속 사모펀드 매각 부당”

### “국민의 발 인수해 먹튀 시도 ... 전면 투쟁” 경고

### 홍행저조 본입찰 미뤄질 듯 ... 금호그룹 인수 영향 주목

금호고속 인수에 참여한 사모펀드들이 잇따라 인수 포기사를 밝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사모펀드 매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호고속의 우선매수권을 가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여전히 강력한 인수 의지를 밝히고 있어, 한국노총의 움직임이 금호아시아나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3일 성명을 내고 ‘공익목적의 버스운송업체인 금호고속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행

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사모펀드에 ‘국민의 발’인 공익 버스운송업체를 팔아넘겨 단물을 빼먹고 사라지려는 ‘먹튀’가 시도되고 있다”며 “노동자 의견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이번 매각절차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모펀드는 투자금 회수와 매매차익의 극대화를 위해 지나치게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단기 차익을 위해 노동자를 해고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이 이미 사회적으로 확

인됐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또 “버스 운수업은 공익사업인데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마저 도외시하는 사모펀드가 금호고속을 인수하면 이용승객이 적은 비수익 노선들을 폐쇄하고 운전기사도 최소인원만 남기고 해고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매각절차에 돌입할 경우 전국 8만명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금호고속의 매각은 현재 난항을 겪고 있다. 금호고속의 최대주주인 IBK투자증권-케이스트파트너스 컨소시엄은 메릴린치를 매각주관사로 선정하고, 지난 9월 예비입찰에 들어갔으나 인수의사를 밝혔던 4~5곳의 국내의 사모펀드 대부분이 인수전에서 빠졌다.

본입찰 후보로는 MBK파트너스 한 곳만 남은 상태다.

인수 후보의 이탈로, 메릴린치는 올해 시행하려던 본입찰을 내년으로 연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호고속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모태 기업이다. 지난 2012년 8월 그룹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IBK투자증권-케이스트파트너스에 재인수를 전제로 매각했다.

이후 사모펀드 측이 공개 매각을 추진하면서 ‘고가 매각’ 논란이 불거졌다. 사모펀드는 최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금호아시아나 측의 인사인 김성산 금호고속 대표이사를 “매각 절차를 방해한다”며 해임하기도 해 금호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69.91 (+4.08)
- ▲ 금리 2.12%(+0.04)
- ▲ 코스닥 545.02 (+3.49)
- ▲ 환율 1112.90원 (+6.10)

## 존슨앤드존슨메디칼, 혈당 측정기 ‘원터치’ 출시 이벤트

### 백화점 상품권 등 경품

한국 존슨앤드존슨 메디칼의 혈당 측정기 브랜드 ‘원터치(OneTouch)’는 오는 31일까지 원터치 웹사이트 내 이벤트 페이지 (<https://www.onetouch.co.kr/event/simpleeasy/>)에서 ‘빈칸’에 원터치 이름을 채우면 총 111명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1등(1명)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30만 원권이 주어지며, 2등(10명)에게는 CJ 제일제당 ‘식후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밥’ 1개월 분 (36개입), 3등(100명)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ALL 기프트콘을 증정한다. ‘원터치’는 존슨앤드존슨메디칼의 혈당 측정기 브랜드로, ‘원터치 울트라이지’, ‘원터치 셀렉트심플’ 두 종류의 제품이 출시됐다.

‘원터치 셀렉트 심플’은 버튼이 없는



디자인으로 별도의 조작 없이 시험지를 측정기에 꽂은 후 시험지에 혈액을 묻히기만 하면 바로 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500회 측정이 가능한 대용량 메모리가 들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원터치의 모든 제품은 이중 측정방식이 적용된 앞선 시험지 기술을 제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원터치 고객센터 센터(080-555-4499, [www.onetouch.co.kr](http://www.onetouch.c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SK증권,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졸업생 재무구조 개선

SK증권은 3일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 졸업 가능성으로 인해 재무구조 개선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윤선 SK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28일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 졸업 여부를 가릴 채권단의 실사가 시작됐다”며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 졸업 여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호타이어의 부채비율은 2010년 858%에서 올해 상반기 290%까지 낮

졌다. 신용등급도 BBB-에서 BBB로 올라갔다. 이 연구원은 “연말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이 종료되면 재무구조 개선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호타이어는 요코하마타이어와 협력 관계 체결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중국산 타이어 제재에 따른 북미지역의 판매 상승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세일골

### “지역 중기 공공관로 지원 중점 추진”

#### 설 동 안 광주시방조달청장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달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관로 지원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3일 제27대 광주지방조달청장으로 취임한 설동원(56) 신임 청장은 “조달청이 지역사회의 동반자로서 지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서비스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순창 출신인 설 청장은 지난 1978년



조달청에서 공직을 시작, 국제물자국 원자재 총괄과장과 시설사업국 시설총괄과장 등 조달청 주요보직을 거쳤다. 조달행정전문가로 동료 및 상하간 신뢰가 두텁고 조직 관리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미리 크리스마스’

### 유통가, 불황에 연말분위기 빨리 조성해 마케팅

지역 유통가는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마케팅이 한창이다. 특히 올해는 더욱 빨라져 ‘미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나올정도다. 장기 불황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기업들이 조기에 연말 분위기를 조성해 소비심리를 타개하려는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먼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띄운 곳은 롯데마트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초부터 크리스마스 관련 행사를 시작, 주말마다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오는 26일까지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소품, 전구 등 300여종의 크리스마스 용품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이어 ‘미리 크리스마스 마케팅’에 가세한 이마트 역시, 지난해 보다 일주일 가량 앞당긴 지난달 10일부터 크리스마스 트리와 장식 소품 판매를 시작했다.

이마트는 올해 크리스마스 트리 트랜드가 공간을 차지하는 트리 대신 호두까기인형 등 작은 크기의 소품들을 벽에 걸거나 책상 위에 올려놓고 즐길 수 있는 소품들에 집중된 것으로 보고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홈플러스 역시 지난 20일부터 크리스마스 용품 판매에 본격 나섰다. 트리 장식 전구를 9900원, 사슴머리피 3900원 등 기획상품을 판매한다.

광주신세계는 ‘원터 베이케이션 신세계로 떠나는 겨울여행’라는 콘셉트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황금색

트리를 장식하는 한편 각종 행사를 열며 고객몰이에 나서고 있다.

지하 1층 생활용품매장에서는 트리와 리스, 샴페인잔, 소이캔들, 인테리어 장식 등 다양한 종류의 홈파티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역시 외무화단을 크리스마스 트리 조명 장식으로 꾸미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러블리 라이프(Lovely Life)’로

롯데·이마트 등 지난달부터

트리·장식용품 등 할인 판매

이름을 바꾼 정기세일과 함께 크리스마스 용품과 선물 상품을 대거 준비,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 크리스마스를 맞아 미니 크리스마스 트리 스타일링과 유리피어인 크리스마스 꽃다발 스타일링을 배울 수 있는 강좌와 더불어 귀여운 크리스마스 슈가 케이크와 쿠키를 만들어보는 강좌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좀 더 이른 크리스마스 마케팅과 관련 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추석 대목 이후 연말 연시까지 소비 심리를 지속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미리 크리스마스 효과는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3일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앞두고 광주신세계 지하 1층 생활용품매장에 트리와 리스, 샴페인잔, 소이캔들, 인테리어 장식 등 다양한 종류의 홈파티 상품이 선보였다. <광주신세계 제공>

## 월산동 “근린주택” 매매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월산동 운진각 4거리 운진각 모텔 뒷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반지하-51평, 상가 및 사무실  
1층-41평, 상가 및 사무실  
2층-46평, 상가 및 사무실  
3층-35평, 주택(방3 화2 거1)  
4층-35평, 주택(방3 화2 거1)
- 시세 및 감정가 - 7억2천만원
- 일시불 매매가 - 6억2천만원 (융자 4억 포함, 보 1억에 월 340만원 가)
- 엘리베이터, 주차장, 텃밭, 도시가스, 전체 올 수리
- 주인 직매 H. 010-3605-5000



## 오피스텔 “매매”

- 29평 - 12층,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양동 하천 방향, 20층중 12층  
화장실 주방 등 전체 올수리, 원룸형  
매매가 - 6,500만원
- 53평 - 13층,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창가, 코너, 전망좋음, 20층중 13층  
화장실 주방 등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적합  
매매가 - 1억7,000만원
- 77평 - 20층,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창가, 코너, 전망좋음, 최상층  
사무실 용도로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전용  
매매가 - 2억7,000만원

주인직매, 010-3180-8900